

이름 박예린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미국 TEXAS A&M UNIVERSITY
파견기간	2011.8.31 ~ 2012.05.8
귀국여부	네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Essentials in Biology: 비전공자들을 위한 biology라 그런지 쉬웠다. 한 class에 200~300명의 학생들이 수강했으며 객관식 문제들로 이뤄진 EXAM이어서 시험에 의한 부담감이 없었다.</p> <p>Essentials in Biology Lab: Lab class 또한 비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이었지만 한국에서와 달리 더욱 실용적이며 많은 기구와 표본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매주 퀴즈와 과제가 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p> <p>Comprehensive Genetics : 일반적인 genetics에 대한 theory 보다 연구에서 쓰이는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한 class였다. 301 class여서 그런지 학생들 모두 열심히 공부했으며 특히 Lab class 는 체계적이며 매우 실용적이었다.</p> <p>Intro West Theatre Drama: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들었던 수업인데 교수가 매우 열성적이었다. 하지만 문학에 진지한 관심이 없다면 수업이 진행될수록 관심이 떨어질 것이다.</p> <p>Basket Ball Intro: 호기심과 운동도 할 겸 들었던 Kinesiology class. 사람들과 친해지기 쉽고 열심히 한다면 못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Immunology: class에 주로 medical school 진학을 희망하는 senior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수업은 재미있게 진행되나 공부할 양이 방대하고 시험이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웠다..</p> <p>Cell Biology: 관심있는 class여서 공부하면서 재미있었다. 한학기동안 4번의 essay writing 및 peer review 가 있었고 시험은 multiple choice 와 essay 가 40 : 60 비율로 이루어져 있었다.</p> <p>History of Western Dress: 학구적인 분위기라기보다 즐겁게 수업하는 편이었으며 시험 또한 쉬웠다.</p> <p>Comparative Psychology: TEXAS A&M에서 쉽다고 소문이 난 수업이다. 출석도 자유로운 편이고 시험도 모두 객관식으로 공부하기 어렵지 않다.</p> <p>Badminton: 일주일에 두 번 있는 class. Kinesiology class 들은 대부</p>

	<p>분 쉬운 편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적을 받기도 쉽다. 그러나 나의 경우 노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p> <p>Self Defense: 이론적인 자기방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파트너와 연습하고 훈련하는 수업이었다. 매우 재미있고 즐거웠다.</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p>Dormitory fee : 약 \$1600/semester 그러나 이 경우 가장 저렴한 기숙사였다.</p> <p>Meal plan: 20 meal plan + \$600 Dining dollar</p> <p>가장 작은 meal plan을 이용했었는데 학교 내에서보다 바깥에서 먹는 기회가 잦아 학기 말에는 꽤 남았다.</p>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학교기숙사 Spence hall
숙소비용	약 \$1600
숙소평가	처음엔 가구의 구조가 한국과 너무 달라 약간 당황스러웠으나 적응한 뒤에는 편했으며 단체 샤워 시설이었는데 오히려 깨끗하고 편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가장 작은 수의 meal plan과 dining dollar 한 학기당 약 \$900
식사비용	학교 근처의 레스토랑을 이용 시 보통 10~20불 (tip 포함)
식사평가	학교 근처에 세 곳의 한국 식당이 있어서 한국음식이 많이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taco 나 burrito와 같은 Mexican food도 상당히 입에 잘 맞아서 식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다.
보험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이용
한달 생활비(대략)	Meal plan과 dining dollar를 이용하면 한 달에 \$4~500 면 넉넉한 것 같다. 중간에 여행을 하게 된다면 더 큰돈이 필요할 것이다.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나는 round ticket을 이용하여 출국 시 이미 귀국 편의 비행기편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보단 나중에 돌아오는 ticket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가끔 아주 싸게 편도편이 구해지기도 하며 round ticket의 경우 탑승하는 공항이 정해져 있어서 학기가 끝난 후 여행 뒤 불편할 수도 있다. 차라리 학교의 짐은 택배로 보내고 여행을 한 뒤 그곳에서 한국으로 바로 귀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듯하다. (자금적 여유가 있을 경우 더욱 해당된다.)

기초 화장품은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미국인들의 피부는 우리보다 건조해서 미국에서 사게 된다면 피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에 Houston이나 Dallas의 H-mart 같은 곳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 shop이 있으며 가격차이도 나지 않아 이를 이용해도 괜찮을 듯 하다.

기숙사를 쓰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기숙사를 쓰는 것이 학교 생활하기에는 편할 수도 있지만 학교 외적인 생활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룸메이트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하우스 파티도 열 수 있고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새로 사귄 친구들을 나의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또한 기숙사는 방학 동안 방을 비워줘야 되지만 아파트의 경우 이러지 않아도 되 급하게 기숙사 방에서 나가는 등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교환학생을 하고 싶다면 매 학기 21학점 꼭 꼭 그리고 재수강 없이 또, 계절학기도 이용하여 졸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많은 학점을 따 놓는 게 좋다. 나의 경우나 주변의 경우, 막상 교환학생을 다녀오니 졸업학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졸업연장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점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8월 16일, 설렘 반, 걱정 반을 안고 미국 행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경유를 해서 미국을 가는 것이 이 정도로 피곤한 일일지 몰랐다. 비행기에서 다리도 제대로 못 피고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그 곳. 도착하자마자 베개와 이불, 생활용품을 사고 아직 학기가 시작하지 않아 텅텅 빈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학교 탐방. 4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서 거대한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크고 오래된 건물과 곳곳에 있는 다람쥐가 뛰어 노는 잔디밭도 구경하고 길도 외우며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진 캠퍼스에 놀라워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학기가 시작된 후, 나와는 확실히 다른 생김새의 학생들과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쓰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비로소 내가 미국에 있구나를 느꼈었다. Lab class를 들으며 학생들과 친해지고 싶었으나 소극적인 성격과 스피킹 실력이 부족하여 그들과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누며 나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나를 그들은 거의 병어리 취급했다. 이 때 나의 자신감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 수업을 듣고 나올 때마다 튀어나오는 한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나를 더욱 소심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비록 다른 수업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사실 과 동기며 선후배 관계가 매우 중요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을뿐더러 수업 시간 내에서 친해지는 것 보다는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4~5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서서히

영어에 귀가 적응하여 점차 빨리 말하는 대화도 어느 정도는 알아 들을 수 있었고 파티 같은 곳에서는 먼저 다가오는 사람도 많고 1 대 1로 대화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를 더욱 편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도 만들고 여기 저기 파티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밥도 먹으며 미국 생활에 80% 적응하게 되었다. 1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 동안 서부로 여행을 다니며 TEXAS와는 다른 미국의 모습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학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을 들었다면 2학기에는 도전! 이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과목을 들었고 역시나 버거웠다. 1학기에는 영어가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2학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나쁜 결과에 좌절을 맛 보았다. 뭐, 결국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앞의 6개월을 겪어봤더니 이제 미국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나도 흠뻑 젖어 주중엔 공부 주말엔 열심히 파티나 놀러 다니는 생활을 하였다. 또한 한국인들과도 뒤늦게 친해져 정도 쌓고 도움(특히 ride...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 곳이었다..너무 넓어서..)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1학기의 마음에는 역시 "한국이 좋아!"라는 부분이 컸다면 2학기에는 아. 미국에서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2학기가 지나고 그동안 정 들었던 친구들과 farewell party도 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진 뒤 동부로의 여행을 끝낸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내 인생에 있어 내가 정말로 원해서 노력하고 성취해 낸 것이 사실 이 교환학생이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나에겐 너무나도 값지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꿈 같은 경험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솔직히 말하자면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다. 하지만 항상 무슨 일을 하던 내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지식과 영어 실력을 자신감 있게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며 그것을 통해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